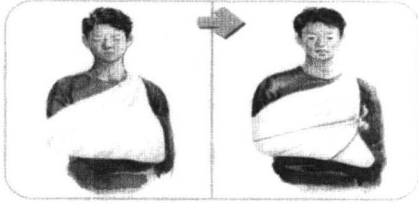


응급처치 가이드 (5): 신체부위별 골절시 처치



1) 쇄골(어깨뼈)

부러진 팔쪽에서 삼각건을 반대쪽 어깨에 맨다. 다른 삼각건으로 팔꿈치에서 몸에 묶어 고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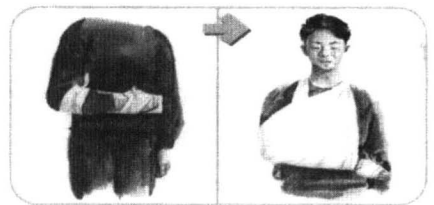
2) 상완

L자형 부목을 대고 팔꿈치는 직각으로 고정하여 팔을 어깨에 맨다. 팔과 몸을 함께 묶으면 보다 잘 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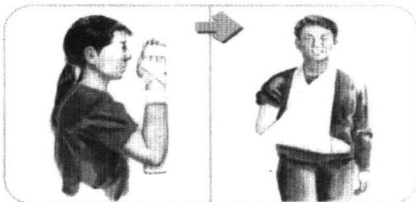
3) 팔꿈치

손가락에서 상완까지 이르는 부목을 이용하여 팔꿈치 상하를 묶는다. 팔을 구부린 채 고정할 때에는 손가락을 팔꿈치보다 높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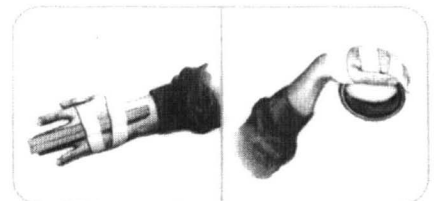
3) 전완·손목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히고 팔꿈치에 손가락까지 부목을 맨다. 묶을 때에는 손바닥을 한자쪽으로 향하게 한다.



4) 손바닥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부목을 손바닥쪽에서 맨다. 손바닥은 밑으로 향하게 하고 묶는다.



6) 손가락

나무젓가락 등의 부목을 대고 고정시킨다. 손가락을 따라 부목을 맨다. 볼종이로 고정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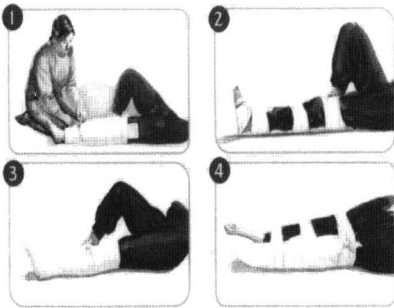
하지의 골절

1) 대퇴(넓적다리)

발 외측에 겨드랑이 밑에서 발끝까지 부목을 댄다. 이어 양발 사이에 모포(부목)를 넣어 양발을 함께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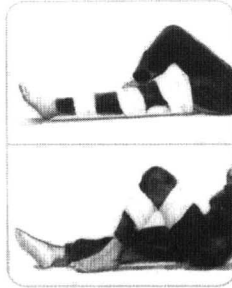
2) 하퇴(정강이)

발목, 무릎관절 모두 움직이지 않게 부목을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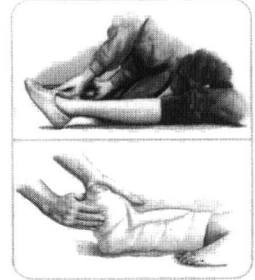
3) 무릎

발목에서 엉덩이까지 부목을 댄다. 아래는 무릎을 굽힌 채로 고정시킨 경우



4) 발목

가능하다면 신을 벗기든가 가위로 오려준다. 방석이나 목욕 타월로 고정시킨다.



척수골절

- 등을 크게 다쳤을 때는 절대로 몸을 굽히거나, 뒤틀거나, 앉히거나 해서는 안된다.
- 경구(목 부위의 척수신경)의 상부를 손상하면 즉시 호흡이 멎어 사망할 수도 있다.
- 경수하부의 손상으로는 팔다리, 흉부, 복부의 지각이나 운동은 전부 마비된다.
- 가능한 한 빨리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다.
- 이송할 때에는 척수를 다치지 않도록 몸 아래에다 넓은 널빤지를 넣어서 운반한다.
- 특히 목부분의 골절에는 머리 양쪽에 베개나 모래주머니를 놓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